



15일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미디어데이 공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이나, 아마시타 미유, 김효주, 해나 그린, 김아림, 유해란.

땅끝 해남서 ‘LPGA 여왕’ 가린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오늘 파인비치서 ‘나홀 열전’
완도 이소미·영암 유해란·김세영 등 고향서 우승 노력

‘땅끝마을’ 해남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샷대결이 펼쳐진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30만달러)이 16일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개막해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78명의 선수가 참가해 컷 탈락 없이 34만5000달러의 우승상금을 놓고 대결한다.

올 시즌 LPGA 우승컵을 차지한 유해란, 김효주, 김아림과 ‘슈퍼 루키’ 아마시타 미유(일본), ‘디펜딩 챔피언’ 해나 그린(호주),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윤이나가 15일 미디어데이에 참가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시즌 LPGA에서는 26명의 우승자가 나오는

등 절대 강자 없는 ‘춘추 전국시대’를 보내고 있다.

유해란은 특별한 곳에서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영암의 딸’인 유해란은 광주 송일중 출신이기도 하다.

지난 5월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유해란은 “감사하게도 올 초에 우승은 했지만 그 후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며 “이번 대회는 부모님 고향(영암) 근처에서 열려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3주 정도 집에서 맛있는 것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다.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3월 포드 챔피언십 우승트로피를 차지했던 김효주는 “예전에는 투어에 독보적인 선수가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우승할 수 있고, 실력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예전보다는 실력이 비슷하고

누가 더 윤이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우승자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준우승을 하는 등 좋은 감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 차이로 우승을 못 했다. 한국에서 하는 대회인 만큼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시합할 때는 욕심 내지 않고 좋은 감 유지해서 리더보드 위에 오르고 싶다”고 우승 욕심을 드러냈다.

김아림도 지난 2월 올 시즌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우승에 이어 해남에서 시즌 2승을 노린다.

최근 2개 대회 연속 ‘톱10’에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김아림은 “하반기에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잘 활용하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비시즌 때 열심히 운동해서 아직 힘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평정하고 LPGA 투어에 진출한 윤이나는 ‘뒤틀림’ 숙제를 풀고 우승컵을 차지하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윤이나는 “기대한 만큼 팬분들이 기대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투어에 적응 했고 기량적으로도 좋아지고 있다. 첫 LPGA 우승이 나오면 좋겠다”며 “많은 팬이 오실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말씀 해주셨는데, 저를 보러 오시면 좋겠다. 큰 힘을 받아서 좋은 퍼포먼스로 보답하고 싶다. 순간순간 집중하면서 3, 4라운드 링크스 깨고 싶다. 그게 이 대회면 좋겠다”고 웃었다.

그린은 “재충전” 전략으로 연패를 노린다.

“지난해 퍼팅이 잘 났었다. 한국에서 우승하려면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 샷감이나 퍼팅이 좋았었다”며 지난해 우승을 떠올린 그린은 “예상하지 못한 성적이 나오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3주간 호주에서 휴식 시간을 보냈다. 휴식기를 마치고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여하게 돼 좋다. 쉬면서 캐디와 스윙 연습도 하고, 새 퍼터로 연습했다. 재충전하면서 남은 시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경기를 하면 최고 수준의 관중이 있어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 그게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해남 곳곳에 내 얼굴(사진)이

있어서 기분 좋다”고 웃었다.

지난 8월 메이저대회인 AIG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신인왕 후보’ 아마시타는 “신인상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좋은 목표이지만 연연하지 않고 경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완도 출신으로 지난주 뷰익 LPGA 상하이 대회에서 4위에 오른 이소미는 다우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을 노리고, 유해란과 같은 영암 출신 김세영은 LPGA 통산 13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3위인 이민지(호주)와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우승자 마야 스타르크(스웨덴),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자인 호주 교포 그레이스 김도 출격한다.

지난 12일 끝난 뷰익 상하이 대회에서 유일하게 시즌 2승에 성공한 세계랭킹 1위 지노 티피꾼(태국)과 2위 넬리 코다(미국), 4위 리디아 고(호주), 5위 찰리 헬(잉글랜드)은 출전하지 않는다.

/해남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해란 “안방서 트로피 들겠다”

2023년 LPGA 신인왕 등 통산 3승…“부모님 집서 3주간 편히 쉬며 컨디션 끌어 올림”

‘영암 출신’ 유해란(24·LPGA 세계랭킹 12위)이 10월 16~19일 전남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고향 팬들 앞 우승 사냥에 나선다.

이번 대회는 올 시즌 LPGA 아시아 스윙의 한국 대회로 해남에서 치러진다.

유해란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3주간의 휴식을 취했다.

그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해 지난 2년간 대회에 많이 나왔다. 올 초에 우승을 했지만 컨디션은 많이 안 좋았다”며 “예전엔 경기에 안 나가면 손해 보는 느낌이라 경기를 많이 나왔다. 이번 3주 쉬면서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 쉬면서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 (적절히) 쉬는 것도 선택이 좋았다는 걸 결과로 증명하고 싶다. 남은 시즌 골프 인생의 스케줄 설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해란은 유년시절 부모님의 고향 영암에서, 중·고교는 광주에서 보내며 최연소 국가대표 타이틀을 거머쥔 ‘호남 루키’로 주목받았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골프 단체전 은메달을 시작으로 2020년 KLPGA 신인왕, 2023년 본격적으로 LPGA에 입성해 신인왕을 차지했고, 올해 5월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을 보태 LPGA 통산 3승을 기록 중이다.

올해 LPGA 3년 차인 유해란은 지난 3년간의 배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해란은 “골프가 다가 아니라는 걸 배웠다. 한국 투어 땀 때는 오로지 골프만 생각하고, 골프장-집 스케줄만 반복했었는데 LPGA 투어를 뛰다 보니까 한 주 쉼 때도 있고, 이번에 미국에 집도 새로 생기면서 골프 외적인 걸 많이 배우게 됐다”며 “또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 그 덕분에 골프 이외의 인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내 골프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즐겁고 행복한 투어 생활을 하고 싶다”고 앞으로 선수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호남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

그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자주 왔던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좀 친근한 게 많다. 그만큼 또 잘 치고 싶은 욕심도 있다. 앞으로 대회 기간 내 컨디션 잘 조절하고, 날씨가 좋다면 더 좋은



유해란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개막을 하루 앞둔 15일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해란은 ‘고향 팬들 응원이 큰 힘’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담이 없었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즐기면서 잘 경기를 풀어나가면 부담도 줄어들어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이 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유해란과 함께 한국 선수 중 최고 랭킹인 김효주와 김아림, 이소미, 임진희, 이민지가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올 시즌 메이저 대회 2승을 노린다.

/해남=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자료 사진〉

“바다 옆 코스 아름다워…변수는 바람”

각국 선수들 ‘상태 최상’ 극찬

“아름다운 코스다. 바다 옆에 있어서 더 아름답다.”

호남 지역 최초의 LPGA(미국여자프로골프) 대회를 앞두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16일부터 19일까지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사진>에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가 열린다. 본격적인 라운드에 앞서 15일 진행된 미디어데에서 코스와 날씨를 주요 관심사였다.

앞서 진행된 뷰익 상하이 대회에서는 ‘너더그린’이 논란이 됐다. 무더위 속 맨땅이 드러나기도 하는 등 최악의 코스에서 대회가 진행됐었다.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선수들은 입을 모아 ‘최상의 상태’라며 땅끝 해남에서의 대회에 기대감을 보였다.

상하이 대회에 출격했던 윤이나는 “(상하이)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코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다. 같은 환경에서 경기하는 것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수긍하려고 경기하려고 했다”며 “(파인비치)코스에서 연습했는데 코스가 아름다웠다. 캐디도 예쁘다고 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이번 여름에 많이 더웠는데 코스 관리 잘 해주신 관리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익숙한 환경이고 그런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번 대회가 많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신인왕 후보인 아마시타 미유도 “지난주에 많이 더워서 상하이 코스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해야 한다. 좋은 경험이었다”며 “신인으로 LPGA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 코스가 관리 잘돼 있고 컨디션도 좋은 것 같다. 일본에서 플레이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역시 상하이 대회에 참가했던 김아림은 “(파인비치)가 어거스타처럼 보였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은 마스터스 토너먼트

가 열리는 곳으로 골퍼들에게는 ‘성지’로 꼽힌다.

“지난주 플레이를 했는데 많이 힘들었다. 24언더 성적을 보면서 ‘내가 부족했구나’를 느꼈다”며 웃은 김아림은 “좋은 코스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휴식기를 보내면서 상하이 대회를 TV로 지켜봤던 유해란은 “그런이 많이 어려워 보이기는 했다”면서도 “어떤 선수는 잘 들어갔다고 하고, 누구는 어렵다고 한다. 열심히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해야 하는 것 같다. 골프는 언제, 어디서든 버디를 만들고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선 대회를 보고 이번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상태가 너무 좋다. 나만 잘 치르면 된다”고 밝혔다.

최상의 코스에서 선수들의 우승 도전 준비는 끝났다. 관건은 바람이 될 전망이다.

‘디펜딩 챔피언’인 한나 그린(호주)은 “아름다운 코스다. 바다 옆에 있어서 더 아름답다”며 “바람이 관건이 될 것 같다. 오전에 연습하는 데 바람이 됐다. 일요일에 이보다 두 배라고 한다. 강풍이 예고됐는데 선수들 안전하게 경기를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효주도 “이번 주 코스가 좋아서 틀림없이 좋은 성적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비예보가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한다. 비보다 바람을 신경 쓸 것 같다. 골짜기 바람도 있고 바다가 잘 보이는 좋은 정황으로 바람이 왔다. 그런 흐름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주말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는데 캐디와 상의 많이 하면서 해야 할 것 같다.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경기 끝나고 나면 하나가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김아림도 “바람이 많이 불었다. 낮은 볼 연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바람을 경계했고, 유해란은 “샷의 탄도가 높아서 바람이 많이 부는 코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요일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준비하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퍼어웨이에서 드라이버로 쳐야 고민 중이다”라고 웃었다.

/해남=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